

익산시, 소상공인 긴급지원

지난 2월 1차 이은 2차 익산형 위기 지원 후속조치 공공요금 지원 등 8개 사업, 총 147억원 예산 확보

익산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익산형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12일 '1차 익산형 위기 지원대책'을 마련해 2020년 예산의 58%인 4,148억원에 대한 상반기 신속 집행, 시청 구내식당 전면 휴무, 소상공인 대출지원액 확대(2천만원 → 3천만원), '익산e로움' 카드 인센티브 연장(10%, 1개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지원대책 추진 이후 후속 조치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익산형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은 8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총 1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전기세 등 공공요금 지원된다. 2019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당 60만원을 일괄 지급하며, 약 9,670여개의 점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 지역화폐인 '익산e로움' 발행액을 급년도 당초 발행액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을 확대 발행하고, 10%의 인센티브 적용기간을 3월까지에서 6월까지로 연장하여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24일부터 카드 이용대상에 기존의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한 모든 점포(대형

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뿐만 아니라 익산지역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답마루, 익산볼 등)을 추가한다.

또한 당초 월 50만원 연5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적용해 왔으나, 26일부터는 인센티브 적용한도를 확대하여 3월에서 6월까지 월 100만원까지 인센티브 10%가 적용되며 연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상당의 카드수수료(최대 50만원)를 지원하며,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최대 19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이어, 정부 두부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급한다. 소속 근로자 1인당 1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하며, 약 3,314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2백만원의 임대료를 3개월간 지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업이 부분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학습지 방문교사, 보습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자 및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등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비를 지원

한다. 근로자 1인당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우리시에서는 무급휴직 근로자 592명,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1,499명 등 총 2,09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제공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1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미취업자가 우선대상이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1인당 매월 18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약 60명 정도 채용할 예정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읍면동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 약국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체부품 설계 및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6억원(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을 긴급 편성할 계획이며, 패션 단지 입주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주얼리집적센터(14개 업체)와 임대공장 입주기업(1개 업체)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최근 정부는 민생 및 금융안정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단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학습지 방문교사, 보습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자 및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등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비를 지원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해 '민원창구 시민 안심 소통창'을 설치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해요”

군산시 '민원창구 시민 안심 소통창' 등 실천 앞장 호응

군산시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해 '민원창구 시민 안심 소통창'을 설치해 민원공무원과 시민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 시켰다. 또 민원인의 대기 시에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안심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도 안심 거리 코너를 정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시립도서관은 우선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이용자의 자동차 안까지 배달해주는 '북드라이브스루 대출서비스'를 운영한다. 더불어 '이용자 책배

/군산=김정훈 기자

혈액 수급 비상... 군산시 '사랑의 헌혈' 실시

군산시는 27일 시청 현관 앞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를 이용해서 소속 직원 및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이 급격히 감소한 탓에 혈액 수급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헌혈을 희망하는 시 소속 직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산시에서는 당초 오는 4월 22일에 헌혈을 실시하기로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단체헌혈 취소, 외출 기피에 따른 개인 헌혈 감소로 혈액 보유량이 심각 단계로의 진입이 예상돼 군산시 공무원 노조와 협의하여 27일로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헌혈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헌혈

버스에서 헌혈을 실시하면 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혈액 수급난으로 수혈 위급환자들 역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원 및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김삼운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온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조합원들의 헌혈 참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매년 2차례 시청 앞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을 실시해 공직자로서의 봉사정신을 기르는데 앞장 서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환경개선부담금 기한 연장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위축에 따른 시민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이뤄졌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으로, 차량연식과 등록 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올해 상반기분의 부과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납세지원제도마련

군산시가 코로나19관련 피해를 위해 다각적인 납세지원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군산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농업분야 융자금 이차보전

익산시가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업 분야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지역 농업을 통해 실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올해 첫 시행하는 본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시 3.9%의 대출이율 중 익산시가 2.925%를 지원하게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공공일자리 인건비 선지급

성인문해교육교사 등 총 6개 사업 참여자 9592명 대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멈춰버린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익산시는 26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휴관한 공공시설 종사자나 중단된 프로그램 참여자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9,282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219명, ▲성인문해교육교사 33명 ▲시립도서관 프

로그램 참여자 58명 등 총 6개 사업 9,592명이다.

우선 시는 일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900여명에게 2월분 급여 2억3천만원을 선지급한다.

선지급된 급여는 앞으로 연장 근로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보충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급여는 27만원 수준이다.

나머지 사업들도 월 단위로 인건비를 선지급하여 참여자들이 당장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도 아직 참여자 선발조차 이뤄지지 않은 8개 사업 75개 일자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선발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매주 모니터링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누락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선지급 사업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참여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건비 선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